

무안공항, 통합 미적대는 사이... 새만금 국제공항이 뜬다

전북도, 새만금 공항 내년 착공...이용객·노선 겹쳐 '반쪽 공항' 우려
광주시장·무안군수, 민간·군 공항 통합 서둘러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가시화되면서 무안국제공항으로 광주 민간·군 공항의 통합을 서둘러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만금에 국제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승용차로 한 시간 거리에 불과한 무안국제공항과 이용객·비행기 노선 등이 겹칠 수밖에 없는 만큼 '반쪽짜리 공항'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조속한 공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전남 정치권 안팎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산 무안군수가 정치적 선택이 아닌, 지역민들 편의와 지역 상생 발전을 고려해 민간·군 공항의 조속한 이전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마무리된 국토부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관련 적정성 검토 용역을 토대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2025년 착공을 추진 중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 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추진 과정의 적법성, 합리성 등을 분석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최종보고서를 내놓았다. 용역결과, 적법성, 연계성, 준수성, 합리성, 공신력 등 5개 지표를 모두 충족해 새만금 SOC 사업 추진의 당위성이 확보된 만큼 2029년 새만금 국제공항 개항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게 전북도 입장이다.

무안공항과 가까운 거리의 새만금에 국제공항이 추진되면 서남권 거점공항인 무안공항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난 2007년 개항한 무안공항은 광주 민간공항의 통합·이전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서남권 대표 국제공항'이라는 위상을 확립하기는커녕, 변변한 경

쟁력조차 갖추지 못하고 동해 공항으로 전락했다. 개항 이후 지난 7월까지 17년이 흐르는 동안 383만 4900여명이 이용했는데, 청주공항의 지난 한 해 이용객 369만5800여명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다.

급기야 무안공항 개항 이후 20년이 넘어서야 세워지는 새만금 공항과의 경쟁력을 따져야 하는 상황이 됐다.

무안공항 개항 초기, 새만금 공항에 대한 건설 계획이 거론될 때만 해도 "무안공항은 그때쯤 되면 이미 활성화된 뒤라 (경쟁력의 차이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던 전남도 입장이 무색한 형편이다.

전남도 안팎에서는 이같은 점을 감안, 조속한 공항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전남 상생·호남 전체 이익'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국가 전체와 지역 발전을 위한 장기적 안목에서 서남권 거점 공항 경쟁력 확보 방안을 고민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오는 2025년 호남고속철도(KTX) 무안공항 경유가 이뤄지면 충청 이남 지역민들의 접근성도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조속한 민간 공항의 이전을 결정하고 무안군은 군 공항 이전으로 화답하는 방식으로 서남권 관문 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광주·전남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국가 차원의 공항 수요를 감안하더라도 호남권에 2개의 국제공항이 운영되는 것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불필요한 지역 간 경쟁을 막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내일 광복절...소녀상의 외침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을 비롯한 광주·전남지역 107개 시민사회단체가 13일 광주시의회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형식 신임 독립기념관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나명주 기자mjna@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정치인 등 1219명 '8·15 특사'

정부가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의 복권을 포함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관련 기사 3면>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현기환 전 청와대 정부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형사범·경제인·전직 주요 공직자·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해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직 주요 공직자 및 정치인 55명, 경제인 15명, 일반 형사범 1137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20명 등이 사면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사회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으로 범죄의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대상자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고, 복권은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러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게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고 통합해 미래로 나

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2016년 11월부터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가 지난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재판받은 조 전 장관도 복권됐다. 재직 시절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가석방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 박근혜 정부에서 정보 경찰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출신 인사들도 이름을 올렸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부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비롯해 원유철·엄용수·노철래·염동열·박상은·신학용·권오을·송희경·이근현·홍일표·황주홍·박종호·박준영 등 여야 정치인들도 복권 대상에 들어갔다.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이기하 전 오산시장, 김시환 전 청양군수, 유영구 전 명지학원 이사장, 최동열 전 강원랜드 전 락기회본부장 등도 복권됐다.

경제인 가운데 이종재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는 잔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욱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등은 복권된다.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카카오페이, 알리에 누적 4천만명 개인신용정보 넘겼다

금감원, 542억건 제공 적발

카카오페이가 중국 엔트그룹 계열사이자 2대 주주인 알리페이에 지난 6년여간 누적 4000만명의 개인신용정보 542억건을 고객 동의 없이 제공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7월 카카오페이의 해외결제 부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카카오페이가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한 전체 가입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제3자인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1차례에 걸쳐 누적 4045만명의 카카오계정 ID와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카카오페이 가입내역, 카카오페이 거래내역(잔고, 충전, 출금, 결제, 송금 등) 등 542억건의 개인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했다.

카카오페이는 설명자료를 내고 "불법적 정보제공을 한 바 없다"면서 앱스토어 결제 수단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 이전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방식으로 이뤄져 왔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금호타이어, 왜 산재사고 반복되나 >6면
광주여대 양궁장 '신궁 열전' 펼친다 >18면
굿모닝 예향 - 광주·전남 테마마을 >22면

내일 광복절 신문 쉽니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바이탈뷰티

신체 본연의 생기와 활력을 되살려주는 홍삼의 명작

명작수



구매문의 :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080-023-5454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및 판매원 : (주)아모레퍼시픽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